Contents | 목차

해외소식

02 **나마스떼, 둥게스와리(인도)**
똘똘 뭉쳐 준비했던 개교기념식 – 정윤미

06 **살라맛, 민다나오(필리핀)**
민다나오 한 바퀴 – 김희자

13 **싸바이디, 라오스**
컵짜이라이라이, 콕농부아! – 배혜정

국내소식

20 **함께하는 사람들**
코뿔소의 힘으로 밀어붙인 송년 캠페인 – 최영
14일간의 거리 축제 – 이임숙
거리 모금하는 내 마음은… – 강윤옥

활동터소식

27 **해외, 국내 JTS 뉴스**
국내/인도/필리핀/라오스

32 **후원인의 소리**

33 **나눔회원소식**
특별후원금 / 해외JTS 후원금 / 나눔저금통 현황

펴낸날 2015. 3. 9 **펴낸이** 법륜 **만든이** 박지나, 김기진 **펴냄터** JTS
도운이 현희련, 최경순, 윤미옥, 신인환, 김희선, 김현지, 김옥희, 임금이
디자인 · 제작 신명기획 02)2273-6128

주 소 137-875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51길 7(서초동) **전화** (02)587-8756 **후원문의** (02)587-8995 **팩스** (02)587-8998
E-mail jts@jtsint.org **홈페이지** www.jts.or.kr

똘똘 뭉쳐 준비했던 개교기념식
- 수자타아카데미 21주년 개교기념식을 준비하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차가운 안개가 운동장을 하얗게 메운 아침, 목도리를 귀까지 동여매고 짙은 안개를 헤치며 자박자박 걸어 오는 아이들. 수자타아카데미 21주년 개교기념식을 준비하는 공연 팀 아이들입니다. 세 달 동안 매일 아침 학교 운동장을 뛰어다니던 이 녀석들. 그땐 정말 추웠는데, 지금은 이렇게 따뜻한 햇볕이 운동장을 가득 메우고 있구나.

함께하고 글쓴이 인도 JTS – 정윤미 활동가

수자타아카데미 21주념 개교기념식 공연은 총 12개 공연에 105명의 학생이 참가하였고 아이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공연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학생들 보다 3시간 씩 일찍 와서 공연 연습을 하고, 오전에 유치원 봉사를 하는 증학생들은 오후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나서야 공연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 욕심으로 공연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서다가도 쿵쾅대는 음악 속에서 한껏 신이 나 있는 아이들을 보면 괜한 걱정이다 싶습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빡빡한 일정인데도 출석률은 우수합니다. 날씨가 유달리 추운 아침에는 '날씨가 추워 감기는 걸리지 않을까? 힘들고 하기 싫진 않을까? 내 욕심으로 공연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서다가도 쿵쾅대는 음악 속에서 한껏 신이 나 있는 아이들을 보면 괜한 걱정이다 싶습니다.

개교기념식의 많은 부분이 수자타아카데미의 시작부터 함께하여 이제는 대학생, 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가 된 수자타아카데미 졸업생들, 인도인 봉사자 선생님들의 재능 나눔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수자타아카데미에서 태권도를 배워, 지금은 다른 인도 학교에서 태권도 교사를 하고 있는 디네쉬와 아지트 선생님이 수자타아카데미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쳤고, 중학교 남학생들의 공연 인원이 부족하게 되자 라훌, 파완 선생님이 긴급 합류하여 인도 전통무용 스리가네시가 완성되었습니다.

해외소식 | 인도 * 나마스떼, 둥게스와리

"그간 성실하게 연습했던 시간만큼 실력이 붙고 자신감이 더해져,
이제는 꽃을 피울 시간입니다."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붐붐볼레 댄스도 아자드 선생님이 직접 가르치고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악기를 다루는 아닐, 수딜, 산토스 선생님은 환영식 행사에서 악기를 연주하여 흥을 돋우기도 했습니다. 아미타부 선생님은 공연 팀 의상과 소품을 준비하러 주말도 없이 매일매일 학교에 나와 학생들의 공연 의상을 준비했고, 행사팀 선생님들은 새로운 진행 방법에 적응하기 위해 무대 리허설을 무려 7차례나 진행하여 학생들 못지않게 맹연습을 했습니다. 운동장에 알록달록 눈부신 하늘을 만들어준 장식도 매일 아침 선생님들 손에서 태어났습니다. 덕분에 올해 개교기념식 행사는 흐름이 자연스러워서 지루하지 않았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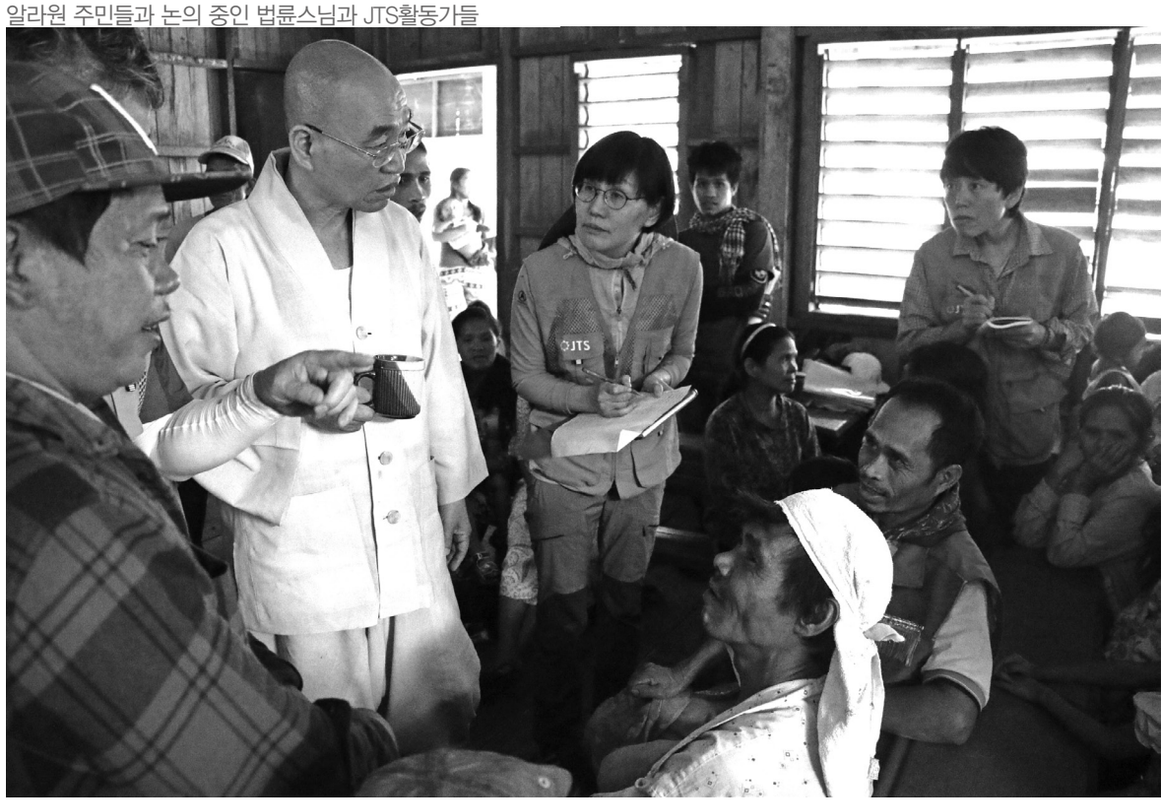
이렇게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은 유치원과 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공연 팀 학생들은 즐겁게 공연을 준비했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마음껏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험하고 궂은 학교 일들을 묵묵히 지원 해 주시는 마을 개발팀 아저씨들이 있었습니다. 개교기념식을 준비하면서 모두가 각자의 위치와 역할에서 똘똘 뭉쳐 행사 일을 향해 달렸습니다.

행사 당일, 무대에 서기 위해 꽃 단장을 하고 예쁜 옷으로 갈아입자 아이들에게서 빛이 납니다. 안개가 짙어도 추워도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연습했던 아이들. 그간 성실하게 연습했던 시간만큼 실력이 붙고 자신감이 더해져, 이제는 꽃을 피울 시간입니다.

평소에는 이름만 불려도 부끄러워하며 뛰어 다니던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이 숨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무대에 올라서는 어색해하는 기색 하나 없이 작은 몸에서 힘이 넘치는 춤 동작을 펼쳐냅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 아이들이 무대를 즐기고 있음이 느껴지니 준비 과정에서 힘들었던 순간들은 눈 녹듯 사라지고, 제 마음속에도 따뜻한 감동이 퍼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는 이 시간이 아이들에게 긴장되는 시간이 아닌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또 다른 스스로의 모습을 느껴보기를 바랐습니다.

개교기념식을 치르다 보면 예 · 체능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 되는 것들은 없을까 더욱 생각하게 됩니다. 아직도 공연을 준비하고 무대에 올라 공연할 때 아이들의 환한 표정이 눈에 선합니다. 언제나 그 웃음 잃지 않고, 숨은 본인의 모습을 기억해주기를 바랍니다.

알라원 주민들과 논의 중인 법륜스님과 JTS활동가들



민다나오 한 바퀴

- 필리핀JTS 12년의 흔적

1월 28일 부터 2월 3일 까지, JTS 이사장 법륜 스님과 함께 민다나오 섬의 사업장을 둘러보았다. 지난 12년간 JTS는 새로운 곳에 학교를 짓는 일에 집중하여 쉼 없이 달려왔지만, 이제 달리기를 잠시 멈추고 그동안 달려온 길에 문제는 없었는지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함께하고 글쓴이 필리핀 JTS – 김희자 활동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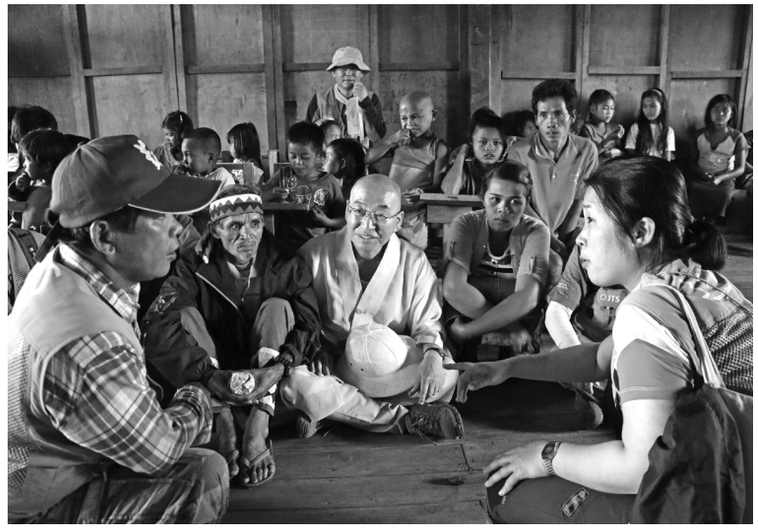
해외소식 | 필리핀 * 살라맛, 민다나오

국가의 지원이 곳곳에 미치지 못하는 섬 민다나오에서 JTS는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한 학교를 지어왔다. 평화 정착을 위한 활동을 지난 12년 동안 해 왔고, 그동안 많은 활동가들이 민다나오 섬을 찾았다. 활동가들은 지금까지 민다나오에 49개 학교 116칸의 교실을 마련하였고, 그 이외에도 원주민 전통문화 보존 사업, 원주민 리더 교육 사업, 물 공급 사업, 다리 건축 사업 등을 진행해 왔다.

민다나오 섬의 평화를 위한 작은 역할부터 하자는 다짐에서 시작한 JTS의 다양한 활동이 12년이 넘으면서 괄목할만한 성과들이 생겼다.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학교를 지으면서 학교가 멀어 다니길 포기했던 오지 마을 아이들이 초등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 12년 동안의 주요 사업을 점검하고, 어떤 보완이 필요하며 앞으로의 사업 방향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논의하기 위해 1월 28일부터 6박 7일의 일정으로 JTS 이사장 법륜 스님께서 민다나오 섬을 방문하셨다. 방문은 크게 학교, 장애아 시설, 평화 정착 및 전통문화 보존 지역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일행은 1월 29일, 31일, 2월 1일에 기존 학교 중 마을의 적극적 협력으로 지어진 알라원, 가가후만, 까나안 학교를 방문 하였다. 이 학교들은 부키드논 주에 위치한 키탕클라드 산과 타고 산 중턱에 위치해 있다. 필리핀 말로 '부키드논'은 '산들'이라는 뜻이다. 부키드논이란 이름이 알려주듯 산 중턱이라곤 하지만 2,896m의 키탕클라드 산과 2,165m의 타고 산 아래 가장 높은 두 마을은 해발 1,200m에 위치해 있다. 한 번에 한 사람이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길로 12km를 오르락 내리락 걸어야 겨우 도착할 수 있는 알라원과, 8km의 길을 고도 20m에서 1200m를 오가며 땡볕을 걸어야 하는 가가후만에서, 마을 주민들은 아이들에게 학교를 지어주기 위해



가가후만에서 학교 보수에 대해 논의중인 마을 리더와 JTS활동가들

모든 건축 자재를 도보로 운반했었다. 까나안은 차가 닿을 수 있는 마지막 마을인 티가손에서 나무 그늘 하나 없는 길을 따라 7km를 걸어야 도착할 수 있다. 이 마을은 성경에 나오는 마을인 '가나안'에서 그 이름이 비롯되었다.

가가후만 학교는 2003년에 지은 후 12년이 지난 지금 목재와 지붕이 삭아 시설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2칸 짜리 학교에 아이들이 꾸준히 등교하고 원활히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 2005년에 건축된 알라원 학교는 정부 반군인 신인민군(NPA)의 잦은 출몰과 편도 3시간이 걸리는 긴 통학 여정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오질 않고 있다. 지금은 3학급을 운영할 수 있는 학교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새로운 선생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까나안 학교는 2004년 처음 학교를 지은 이후 운영이 잘 되어 총 6칸의 유치원 부터 6학년 까지의 학급을 운영하고, 2009년에는 졸업생도 배출하였다. 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을 가진 까나안은 땅 이용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으로 주민 간 무력충돌이 빈번해 졌고, 결국 치안상의 문제로 2012년에 학교를 폐쇄하게 되었다.

1월 29일 방문한 다물록 군은 부키드논 주와 노스 코타바토 주의 경계에 행정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2006년부터 2013년까지 13개의 학교건축을 지원하면서 JTS가 평화 정착에 이바지 한 곳이다. 총을 다루는 법을 배워 전사가 되겠다던 다물록 경계지역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여 마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 다짐하는 변화를 보였다. JTS는 이 지역에서 지난 2012~13년 다물록 프로젝트를 코이카의 지원으로 진행하여, 다물록 보건소, 묘목장, 마카파리 고등학교를 지원하였다.

까나안 전 리더의 부인 엘리스와 학교운영에 대해 대화중

다물록 마카파리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논의중

다물록 지역의 학교 시설과 보건소 시설들은 프로젝트 완성 후 관리가 잘 되고 있으며, 학생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마카파리 고등학교는 개교 때 보다 학생수가 늘어, 최근에는 재학생이 250명에 이르렀다. 이번 2014~15학기에는 첫 졸업생 53명도 배출하게 되었다. 다물록 보건소는 조산원과 결핵 검사소를 활발히 운영하면서 산모의 건강 증진과 결핵 예방에 힘쓰고 있다. 다만, 시골 지역이라 의료진의 충원이 더 요원해지고 있어, 한국에서 자원봉사 의료진을 파견하는 등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1월 31일에는 딸라각 지역의 SPED(Special Education Philippines)를 방문하였다. SPED는 장애아동을 위한 학교로, 복합 장애를 동반하는 시각 장애아동을 위한 기숙시설을 토대로 민다나오 섬의 장애 아동의 교육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지어졌다. 이후 청각, 지능 장애 등 여러 형태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이 곳 SPED에서 교육 받아오고 있다. JTS는 2003~2004년 딸라각 지역에 SPED를 위한 교실과 기숙사를 건축하였다. 이번 방문에서 학교 건물은 10여 년이 지나 목재가 개미에게 쏠려 파손되고, 물이 잘 나오지 않는 등의 문제점들이 논의되었다. JTS는 학교 건축 후 관할 교육부(DepEd)에 학교 관리를 이양하였으나, 교육 기자재만 지원될 뿐 건물의 유지 보수에는 지원이 전무한 상태였다.

민다나오의 평화 정착을 돕고자 하는 JTS는 학교를 통한 간접적 지원과 더불어, 적극적인 평화 정착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1월 30일에는 민다나오 섬 서쪽 해안에 위치한 코타바토 시를 방문하였다. 이슬람 반군인 MILF(모로이슬람해방전선 Moro Islamic Liberation Front)의 대외 협력자인 자스파르(Jaspar) 부회장을 만나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코타바토 시는 필리핀 내 무슬림들이 밀집해 있는 마긴다나오 주, 노스 코타바토 주, 술탄 쿠다라트 주와 연결되어 있는 무슬림 지역의 중심 도시이다. 이 곳에서 법륜 스님과 자스파르 부회장은 최근 있었던 필리핀 경찰과 MILF의 충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래의 민다나오 평화 정착에 대한 MILF, 필리핀 정부, JTS의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오갔다.

일행은 코타바토 시티에서 MILF를 만난 이후 원주민 전통 문화 보존과 민다나오의 평화를 염원하기 위해 지은 송코 피스 홀(Hall of Peace)을 방문하였다. JTS는 전통 문화 계승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4년에 송코 지역에 필리핀 전통의 2층 목조 건물을 지었다. 피스 홀은 현재 송코 마을의 다투(촌장) 미키타이씨의 지휘 아래 필리핀 내 100개 이상의 원주민 부족 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현재는 필리핀 교육부와 함께 원주민 문화 보존 수업을 학교에서 정규 수업으로 만들어 전파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코타바토 시티에서 MILF 자스파르 부회장과 함께 논의중인 JTS일행들

토니 대주교 관저에서 JTS 활동가들과 함께

기존의 지원 현장을 답사하면서 민다나오와 JTS의 인연을 만들어주신 토니 대주교님을 가가얀 데 오로 성당에서 만나는 시간도 가졌다. 학교 건축 후 마을들의 현 상황과 JTS의 계획 등에 대해 대화가 오갔는데, 특히 MILF와 정부 경찰의 충돌에 대해 그 원인과 앞으로의 정세가 JTS 사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논의가 오갔다.

5일간의 현장 방문을 갈무리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틀 간 법륜 스님과 일행은 JTS 센터에서 회의를 이어나갔다. 무조건 학교를 새로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기존의 지원 지역이 지원 이후에도 자립성을 갖고 원활히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JTS 사업의 궁극적 목적임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앞으로는 지원한 학교들을 몇 단계로 분류하여 학교와 마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의견을 모았다. 또한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진 않았지만, 스스로 자립하는 건강한 마을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여러 방안이 검토되었다. 더 이상 빚지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방안, 좋은 소득 작물이 있음에도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알라원과 같은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방법 등에 대해 논의가 되었다. 더불어 더 나은 소득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JTS 시범농장에서 소득 작물을 연구하는 방안과 마을 주민의 영양 증진을 위한 야채와 곡물 재배도 논의가 되었다.

지난 12년을 점검하는 일주일 동안 JTS의 선배 활동가가 이루어 놓은 성과에 놀랐고 감사했다. 그와 동시에 앞으로 이곳에 파견될 활동가들에게 주어질 많은 과제와 이루어야 할 활동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풀 수 있을지 고민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이런 JTS의 고민과 행동이 작은 개울이 모여 강이 되고 바다가 되듯, 민다나오 곳곳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작은 마을이 학교를 갖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염원한다. 거대한 보리수나무도 작은 씨앗부터 자라나듯, JTS의 지원이 민다나오의 평화에 가장 큰 밑바탕이 되기를 희망한다.

컵짜이라이라이, 콕농부아!

– 콕농부아 마을 학교 준공식 풍경

어둠 속, 많은 사람들이 부산하게 움직입니다. 밤 여덟 시면 잠자리에 드는 것이 보통인데 오늘은 밤이 깊도록 다들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마을 아주머니들은 커다란 솥에 물을 끓이고, 남자들은 공사 마무리를 합니다. 잠깐 눈을 붙이러 집에 돌아갔던 사람들도 새벽 세 시가 되니 하나둘 다시 모여듭니다. 그렇게 콕농부아 마을 학교 준공식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라오스 JTS – 배혜정 활동가

아침 해가 밝아오자, 아이들이 하나둘 교문에 들어섭니다. 잔뜩 때가 묻은 꼬질꼬질한 옷 대신 지난 주 JTS에서 지원한 새 교복을 예쁘게 차려 입으니 아이들 얼굴이 더욱 환해 보입니다. 운동장에는 천막을 치랴, 탁상과 의자를 줄지어 세우랴, 한쪽에서는 끓이고 지지고 볶고 음식 준비하랴, 준공식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9시 경이 되니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JTS 본부에서도 이사장님과 대표님을 비롯하여 4명의 식구들이 방문하기로 되어 있고, 참파삭 주 교육청 책임자는 물론, 수쿠마 군 교육청에서 교육청장과 부청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직원들이 참석하고, 수쿠마 군 내 다른 학교들에서도 JTS 학교를 구경하러 많은 선생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아침까지 바쁘게 준비하던 마을 주민들도 어느새 멋지게 차려입고 모였습니다.

내빈에게 꽃다발을 건네는 학생들

수쿠마 군 중학교 학생들의 합주공연에 맞춰 내빈들에게 꽃다발을 주는 것을 시작으로 준공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콕농부아 학교 건축 프로젝트에 대한 긴 소개에 이어 라오스 스님의 축원기도, JTS 이사장님의 축사, 군 교육청장의 답사, 주 교육청 책임자의 감사 인사가 있었고, 주 교육청에서 JTS에 증정하는 감사패 수여식이 이어졌습니다. 평소에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뛰어다니며 놀기 바쁘던 아이들이 중요한 행사라고 의젓하게 앉아있는 것을 보니 어찌나 대견스럽던지요.

다음 순서로 이 아이들을 위해 JTS 본부 식구들이 한국에서 가져온 책가방과 문구류를 전달하였습니다. JTS 이사장님과 대표님이 직접 아이들 한명 한명 선물을 나누어주고 책가방을 메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어찌나 좋아하던지 보는 이들이 더 흐뭇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가져온 책가방은 수쿠마 중학교 학생들도 부러워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콕농부아학교 학생들

책가방과 문구류 선물

현판식과 사진 촬영을 마지막으로 준비된 순서가 모두 끝나고, 마을 주민들이 한국에서 온 손님들을 위해 바시 세레모니를 준비해주었습니다. 바시 세레모니는 건강, 행복, 성공 등을 기원하면서 손목에 실로 엮은 팔찌를 채워주는 의식인데, 결혼식이나 환영식 등 특별한 날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라오스 전통의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팔찌를 채워준 탓에 손목이 주렁주렁 깁스를 한 것처럼 무거워졌지만, 그 무게만큼 이곳 사람들의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공식은 이렇게 끝났지만, 모든 것은 이제 또 새롭게 시작입니다. 마무리가 미진한 부분의 보완작업이 필요하고, 팍세(Pakse)에 거주하는 교민의 후원으로 아이들 책과 운동기구 지원이 한차례 더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 설치한 세면대와 화

장실 등을 아이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위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JTS가 없어도 학교가 잘 유지 ·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물탱크는 주기적으로 청소가 필요하고, 놀이시설은 수쿠마 군에서 유일한 놀이시설이다보니 콕농부아 마을 아이들 뿐 아니라 이웃 마을 아이들도 놀러 와서 이용하는 까닭에 고장이 나기 쉬워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마을답사를 다닐 때 NGO들이 펌프를 지원해도 1~2년 만에 고장이 나 무용지물이 된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고장이 났을 때는 바로 수리할 수 있도록 혹은 물이 부족해지면 재설치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바시세레모니

마을 이장단, 교사, 학부모 대표, 군 교육청 담당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학교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정기적으로 학교를 관리하고, 마을의 힘만으로 어려울 때는 군 교육청 혹은 주 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라오스에는 마을마다 이장단, 부녀회, 청년회, 교육위원회 등 여러 조직이 촘촘히 잘 짜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직이 활발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장단 같은 경우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교육위원회는 이름만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준공식을 마쳐도 여전히 걱정은 태산입니다. 걱정이 많은 성격인 탓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사용하는 시설이고 또 이곳에 정이 너무 들어 하나하나 더 신경이 쓰여 그렇기도 합니다. 이곳 주민들과 알게 된 지도 1년이 훌쩍 넘었고, 그동안 일주일에 두어 번 모니터링을 할 때마다 마을에서 숙식을 해결했고, 준공식 바로 전 한 달간은 아예 마을에서 살았으니 정이 안들 수도 없습니다. 특히 활동가들의 숙식을 책임져주신 이장님 댁에서는 매일같이 한국 돌아가면 보고 싶어서 어쩌나, 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냐, 꼭 전화해라, 놀러 와라, 서운함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가옥 수 46개, 총 79가구에 주민 325명이 전부인 작은 마을 콕농부아, 저에게 이곳은 '우리 마을'이 되었습니다. 건강은 안 좋지만 눈빛이 아이처럼 맑은 할머니도 계시고, 뭘 잘 먹는지 눈여겨보다 좋아하는 음식을 챙겨서 해주시는 어머니도 계시고, 해질녘 일을 보러 군내로 나가려고 하면 너무 늦었다며 데려다 주시는 아버지도 계시고,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어느새 달려와 말없이 들어주는 동생들도 있고, 처음엔 인사를 건네도 뒤로 숨기만 하더니 이제는 멀리서 지나가도 소리쳐 불러 먼저 인사하는 조카 같은 예쁜 아이들도 수십 명이나 됩니다.

'우리 마을'이고, '우리 학교'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곳을 떠나는 것이 그리 슬프지 않습니다. 나이가 차면 부모님 집을 떠나 내 보금자리를 만들어도 명절에, 휴일에, 그리고 보고 싶을 때면 언제든 찾아가듯이, 저도 주기적으로 한 번 씩, 혹은 특별한 일이 있거나 그냥 그립고 모두들 보고 싶을 때면 이곳을 다시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떨어져 있는 동안, 학교 시설이 고장 없이 잘 사용되길 바라고, 우리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랄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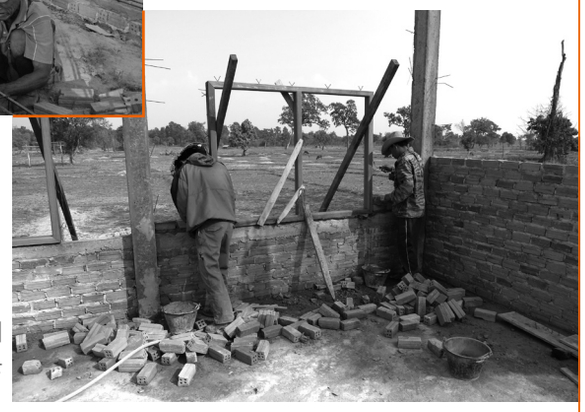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콕농부아 마을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후원자 분들, 지원을 아끼지 않은 JTS 본부 식구들, 그동안 꾸준히 관심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어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컵짜이라이라이(감사합니다)!

콕농부아 학교가 세워지기 까지

새 학교가 지어질 공터입니다. 2013년 심한 홍수로 무너진 목조건물의 잔재들을 치우고 나니 휑한 터만 남았습니다. 이 공터가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요?

캄보디아지부 책임자 김재령 활동가의 도움으로 부지 수평을 맞추고 건물 위치를 잡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날은 조촐하게나마 기공식을 준비하여 교육청과 주민들, JTS가 새로이 학교건축의 의미를 새기고 서로 힘을 북돋워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랫보공사가 한창입니다. 수석기술자의 지휘 아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술자팀은 모두 건축기술을 가진 마을 주민들로 꾸려졌습니다.



흙벽돌로 벽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벽이 세워지니, 드디어 학교가 제 모습을 갖춰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천장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천장공사는 마을주민 중에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웃마을 기술자를 불러왔습니다.

놀다가 넘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놀이터에 모래를 채우고자, 터를 파고 있습니다. 활동가 둘이 땀을 뻘뻘 흘리며 곡괭이질에 삽질을 하고 있으려니, 선생님과 학생들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조금 큰 아이들은 삽질을 돕고, 작은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시멘트포대에 흙을 퍼 담아 옮깁니다. 고생했다고 사탕이라도 하나씩 나누어주면 어찌나 좋아하는지, 돕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아이들, 참 예쁘죠?

이렇게 신난 모습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늘 얌전하던 아이도 그네를 차지하려는 무리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주말에도 새벽부터 나와 저녁 늦게 엄마가 소리쳐 부를 때까지 놀이기구에 매달려 있는 아이들을 보며, 활동가들도 덩달아 행복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군에 하나 있는 놀이터이다 보니 다른 동네 아이들까지 몰려 놀이기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그게 걱정입니다.

본건물에 화단을 조성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마을이라 논이 넓게 펼쳐져 있고 각종 채소를 기르지만 꽃은 구경하기가 어려웠는데, 학교에 꽃밭이 생기니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모두 좋아합니다. 아직은 초록 잎사귀만 무성한데, 빠알간 꽃이 피면 정말 예쁘겠네요.

코뿔소의 힘으로 밀어붙인 송년 캠페인

마산지역에서 코뿔소 같은 추진력으로 밀어붙인 JTS 송년 캠페인은 근래의 지역 행사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각별한 행사였습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마산지부 – 최영 활동가

"우리가 원래 '돌격, 앞으로' 전문인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 보입시더." 라며 고경녀 활동가와 박남주 활동가님이 밀고 나가는데, 때 맞춰 JTS 송년 캠페인 일정이 잡혔답니다. 12월 달력에 이런저런 행사를 날짜마다 적어 넣고, 나머지 빈칸은 모조리 JTS 송년 캠페인 거리 모금으로 채워버립니다. 그렇게 적어보니 15일부터 26일 까지 열 번이나 되었습니다. "그렇게 까지 자주 할 필요가 있나요? 날도 춥고 사람들도 지칠 텐데..." 넌지시 찔러보았지만 "좀 그렇지예?"하고 말은 하면서도 줄이지는 않습니다.

박남주 활동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열 번의 모금에 모두 참여했습니다. 적게는 8명, 많게는 10여 명의 사람들이 창동, 합성동, 댓거리 등에서 거리 모금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총 115명이 거리 모금에 참여했는데, 하필 이때 날씨가 대단했지요? 따뜻한 남쪽 나라 마산의 기온이 영하 8도 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칼바람에 입이 얼어붙을 지경이었지만 모두들 웃으며 열심히 뛰었습니다. 한 번만 참여하고 말아야지 하다가도 두 번, 세 번 거듭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다 돌아와서 동참해주신 분, 고맙습니데이~

처음 모금에 참여하는 봉사자들의 마음이 모금 후 마음 나누기에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처음 해보니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한다는 게 입도 안 떨어지고 난감했다.", "나를 겸허하게 내려놓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꼈다.", "다른 분이 모금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간절함'에 감동받았다.", "그냥 미모로 밀고 나갔다." 라고 했던 분들이 모금이 거듭될수록 "거리를 지나가는 모든 분이 소중하게 느껴졌고 외면하는 분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 스스로 대견했다.", "거리에서 만나는 분을 부처님이라 생각하니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데 단정하게 입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라며 달라졌습니다.

"그냥 미모로 밀고 나갔어예."

모금 활동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앰프를 준비해서 가능한 안내 방송을 하면서 진행하니 참여하는 사람에게도 힘이 되었고, 신뢰도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반발도 있었습니다.

"너희는 어느 곳에서 나왔냐? 모금해서 전부 다 연애질에 써먹더라.", "보소~ 여기 사이비요. 절대 돈 주지 마이소~!"

기력 넘치게 온 동네가 떠나가라 외치는 술 취한 아저씨의 주정도 있었습니다.

날은 춥고 어둠이 내렸어도 우리의 캠페인은 계속 됩니다.

'날씨가 추워서', '밤이 늦어서' 거리에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도 막상 해보면 그것은 하기 싫고 위축된 우리 스스로의 마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거리 모금을 마칠 때 즈음엔 살을 에는 추위마저 이겨낸 또 다른 대견한 마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춥어 죽겠심더. 퍼떡 찍으이소, 고마!"

그렇게 JTS 송년 캠페인은 연말 마산지역을 들썩이게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열 번의 거리 모금을 기록한 동영상을 돌려보며 서로들 다시 한 번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한 번 참여한 봉사자들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 내년에는 더욱 마음을 내보겠다.'고 다짐하고, 여러 번 참여한 사람들은 '올해 갈고 닦은 솜씨를 잊지 않도록 자주 참여하겠다.'고 하니 마산지역 거리 모금은 앞으로도 흥할 것 같습니다.

14일간의 거리 축제

– 거리 모금을 놀이로 삼아

함께하고 글쓴이 대구지부 – 이임숙 활동가

오랜만에 거리 모금에 나온 원광순님

대구 지역에서는 지난 2014년 12월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 동안 매일 송년 거리 모금을 진행하였습니다. 모금에 참여한 봉사자는 총 172명으로, 특히 주간은 9개의 팀이 번갈아 하루 씩 맡아 매일 8~9명이 꾸준히 참가하였습니다.

몇 년 째 모금을 담당하는 임은숙, 김정임 활동가의 든든한 지원으로, 처음 참여하는 사람들부터 오랜만에 모금에 참여한 사람들까지 봉사와 나눔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올 겨울 최고의 강추위에 손끝, 발끝, 코끝이 시려왔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모금했고, 특히 기쁜 성탄절에 환한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동대구역 광장에서 모금을 하다 보면 군인들을 많이 마주칩니다. 어느 날 커다란 가방을 어깨에 멘 군인 30~40명이 이동하던 중, 줄 끝에 있던 군인 한 명이 큰 목소리로 "저도 서울 JTS 활동가입니다"라며 반갑게 외칠 때에는 얼마나 반갑고 또 반가웠는지요.

봉사자들은 JTS의 하늘색 조끼를 나눠 입고 즐겁게 모금을 하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기쁨에 행복했습니다. 모금에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 나누기에서도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대구지역의 거리 모금 중심에는 매주 수요일마다 JTS 거리 모금을 진행하는 임은숙 활동가가 있습니다. 4명의 아이를 둔 임은숙님은 거리 모금 활동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봉사가 너무 하고 싶어서 다른 활동가와 시간이 맞지 않을 때에도 혼자서 시내에 나가 거리 모금을 한다면서, JTS 거리 모금이 어떤 의미인지 물으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내게 거리 모금이란 놀이"라고 합니다..

환한 모습의 모금 참가자들

거리모금 후 봉사자들과 함께 (왼쪽 끝이 임은숙 활동가)

모금활동이 놀이라는 임은숙 활동가

그 임은숙 활동가가 들려준 어느 거리 모금에 참여한 분의 후기는 가슴을 울리는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비가 내립니다. 천천히 가을도 지나가고요. 오늘 오후에 거리 모금이 있어 다녀왔습니다. 여전히 동대구역은 붐볐습니다. 약간 설레는 공기가 가득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차 타고 어디론가 떠나는 사람들, 어디에선가 도착하는 사람들…

역 광장에서 하는 모금에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방긋 웃으며, 기쁘게 쓰이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목청 돋우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 원 이천 원, 어떤 분은 만 원 지폐를 넣어주셨지요. 이빨이 하나도 없는지 합죽한 입에 미소가 가득하던 어떤 할머니가 "에이구!" 하며 천 원을 넣어주시는데, 제가 받는 것처럼 기쁘고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모금하는데 한 할아버지가 그 돈 뭐할 거냐고, 자기한테도 좀 달라고 몇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웃으며 모금을 계속하니 흥미가 없어졌는지 가버리셨습니다.

조금 있으니 이번엔 또 다른 할아버지 한 분이 까만 비닐을 손에 움켜쥐고 실실 웃으며 오는 폼이 '또 뭘 얻으러 오시나' 하여 약간 귀찮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귀를 닫고 제 할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가시도 않고 옆에서 계속 중얼중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 예, 굶는 아이들 돕고 있어예." 하며 마지못해 대충 대답하자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이었습니다. "좋은 일에 쓰는데 나도…" 하시며 천 원 짜리 한 장을 넣어주셨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다시 보니 그 할아버지는 노숙자도 아니고 그저 약간 허름한 옷에 평범하고 미소가 얼굴 가득한 할아버지셨습니다. 또한 노숙자라 하더라도 제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겉모습 만으로 내 마음대로 남을 판단하다니. 할아버지 가시는 뒷모습에 "감사합니다." 고개 숙여 인사를 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작은 조각들이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듯, 활동가들은 이렇게 서로 에너지를 주고 받으며 맑고 밝은 세상을 향해 한걸음 나아가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거리 모금하는 내 마음은...

2014년 크리스마스. 처음으로 동춘역에서 JTS 거리 모금을 했습니다. 굶주리고 아픈 아이들을 위해 부모의 마음을 내어 모인 10명의 봉사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각자의 속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송도지부 – 강윤옥 활동가

고건자님

오늘은 크리스마스다. 그런데 JTS 거리 모금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예전에 홍보 전단을 돌렸을 때 외면당했던 기억이 아직 아물지 않아서 인지 가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인원이 별로 없을 것 같아 머릿수라도 채워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날씨도 오지게 춥다. 집을 나서는데 우리 집 강아지 두부가 꼬리를 흔들며 가지 말고 따뜻한 집에서 같이 놀자고 흔들리는 내 마음에 부채질을 했다. 순간 갈등이 일었다. 그러나 마음을 다잡고 “두부 안녕. 갔다 올게.”하고 집을 나섰다.

김명주님

지역에서 처음 하는 거리 모금이다. ‘사람들이 얼마나 올까? 사람들이 과연 협조적일까? 모금액은 얼마나 될까? 손이 시리진 않을까?’ 작은 눈덩이가 데굴데굴 굴러 큰 눈덩이가 되듯 걱정이 꼬리를 물며 나를 짓눌렀다.

‘아니야! 또 미리 걱정하는 내 습관이 발동되는구나. 그냥 가볍게 해보는 거야.’ 생각을 돌이키니 내 속을 가득 채웠던 두려움이 안개 걷히듯 걷혔다. 생각이 다른 곳으로 새지 않게 모금 준비에 집중하며 사람들을 기다렸다. 시간이 되니 속속 도착한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춥죠? 호호!” 힘차게 인사를 건넨다.

조순덕님

겨울만 되면 몸이 좋지 않다. 추우면 몸이 굳고 기력이 많이 떨어진다. 거리 모금에 관련해서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고맙게도 지영님이 나서서 일을 추진하여 결국 오늘이 왔다. 더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거리 모금을 하게 되니 감사한 마음이다.

김지영님

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가르치는데 내가 아는 이론의 실천에는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아 이번 거리 모금의 총괄을 자원했다. 열심히 기획하고 준비했지만 막상 현실과는 괴리가 있고 기대한 만큼 실망이 생겼지만, 그 차이 속에서 더 많은 걸 배우고 느낀다. “배고픈 아이는 먹어야 합니다. 아픈 아이는 치료 받아야 합니다.” 하고 외치는데 갑자기 가슴에서 울컥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최효진님

나는 두 번째 JTS 거리 모금 참여다. 예전에는 거리 모금을 하는 여러 단체를 지나치면서 쳐다보지도 않았다. 과연 그 돈이 제대로 쓰이기나 하는 건지 신뢰의 마음들지 못했기 못했기 때문이다. 막상 내가 당사자가 되어 거리에 나서보니 이렇게 효율 낮게 사기 칠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옆에서 함께하는 봉사자가 큰 소리로 외친다. 마치 집에 굶고 있는 아픈 아이를 두고 나온 아버지 마냥 진심을 담아 외치니 나도 그 마음이 되어 스스럼없이 사람들에게 다가선다.

김순예님

못 사는 나라에는 굶어 죽는 아이, 아파도 기본적인 치료조차 못 받고 죽어가는 아이가 있다고 알고는 있었지만 내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수업 시간에 배운 세계의 연관성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고 체득한 건 아니지만 그 맥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마음을 내는 것이 당연한 태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외면했던 진실을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 했던가? 내 삶이 조금씩 향기로움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느낀다.

이상천님

모금함을 두 손에 쥐고 교육 받은 대로 외치는데 쑥스러운 마음에 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다. 오십 살 넘은 아저씨가 억지 웃음을 띠고 다가가니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하며 슬쩍 슬쩍 피하는 것 같다. 여러모로 젊은 처자들 보다 불리한 점이 많다. 기운이 빠진다. 저쪽에서 나보다 더 험상궂게 생긴 중년의 남자가 걸어온다. 당연히 그냥 지나가겠거니 했는데 내 앞에 멈춰 만 원을 꺼내 모금함에 넣고는 “수고하시오.”하고 간다.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질거라 생각하고 모금이 여의치 않겠다고 투덜거렸는데 나 또한 선입견으로 틀을 만들고 있었구나 싶다.

오미숙님

두 명씩 짝을 지었는데 어쩌다 보니 나만 짝이 없이 혼자서 하게 되었다. 조금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외쳤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TS에서 나왔습니다. 천 원이면 굶주리는 어린이 두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별 호응 없이 귀찮은 표정으로 숱한 사람들이 스쳐 지나간다. 내 마음 속에 실망하는 마음이 엿보이자 사람들에게 기대하던 마음을 내려놓고서 내 마음을 살피며 호소를 이어갔다. 지나가던 초등학생이 부끄러운 표정으로 다가오

더니 처음으로 내 모금함에 천 원을 넣어 주었다. 기대하지 않겠다 했는데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눈물이 왈칵 솟아 올랐다. '주책없이 정말….' 눈물을 훔치며 짝 없이 혼자 해서 다행이라 생각했다.

주선옥님

외적조건 때문에 마지못해 나갔다. 한참을 외쳤는데도 사람들에게 외면 받으니 온갖 생각들이 올라왔다. '자기들은 비싼 옷에 크리스마스라고 아이들에게 몇 만 원 씩 하는 선물을 들려주며 착하고 훌륭하게 자라라 하고서는, 정작 굶고 있는 아이가 있다고 하는 데는 눈길 한 번 주지도 않네. 저러면 애들이 도대체 뭘 배우겠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삶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금분님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 3명이 장난을 치면서 다가오고 있었다. 그 중 초롱한 눈의 파랑 패딩을 입은 소년이 호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천 원을 꺼내 내 모금함에 넣으려 하자 옆에 있던 빨강 패딩이 친구의 팔을 탁 치며 말한다. "야! 그럼 넌 게임 안 할 거야?", "천원이면 굶는 아이 두 명이 먹을 수 있대. 너도 넣어. 그리고 오늘 게임은 천 원으로 PC방 형한테 20분 씩 나눠서 하게 해 달라고 부탁해 보자."라고 하니 빨강 패딩이 머리를 긁적이며 역시 꾸깃꾸깃한 천 원을 꺼내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모금함에 넣는다. "야! 니들 맘대로 이러기야?" 검정 패딩이 볼멘소리로 투덜거린다. "얘들아! 고마워."하니 세 명은 씩 웃으며 어느새 까불거리는 중학생으로 돌아가 장난을 치면서 PC방으로 향한다. 내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진다.

인터뷰를 하면서 거리 모금이 어째서 마음을 닦는 방법의 정수라고 하는지 다시 한 번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움켜쥔 나를 놓고 나와 다른 너를 인정하고 이해하는데 직접 몸으로 부딪치며 깨우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음을 알아갑니다. 모두 함께 따뜻한 나눔으로 함께 희망을 쌓아가는 우리들이 정녕 자랑스럽습니다.

Korea
국내소식

1. 한지민씨와 팬 여러분들의 쌀 화환 기부

JTS 홍보대사 한지민씨께서 새 드라마의 제작 발표회에서 팬들에게 받은 600kg 상당의 쌀 화환을 JTS에 기부하여 주셨습니다. 이 쌀 화환은 디씨인사이드 한지민 갤러리와 국제 팬덤 HJM Goddess of Light 여러분께서 마련해 주셨으며, 한지민씨의 뜻에 따라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 JTS에 기부되었습니다. JTS는 서초3동 주민센터를 통해 관내의 기초생활수급 가정 및 차상위계층 가정에 이 쌀을 전달했습니다.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한지민씨와 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제주 극락사 스님과 신도 여러분의 이어지는 기부

제주 극락사(주지 휴진스님) 신도 여러분들께서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성금 2천 만원을 오지 마을에 학교를 짓기 위한 사업에 기부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제주 극락사 수근 스님께서는 인도 수자타아카데미 학생들을 위한 급식비로 사용하시라며 3백 만 원을 별도로 후원해주셨습니다. 지난 해 수자타아카데미 학생들을 위한 급식비와 라오스의 학교 건축에 후원해주신데 이어 계속되는 기부에 제주 극락사 스님 이하 신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 2015년도 JTS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

지난 1월 26일 서초동 평화재단 5층 회의실에서 한국JTS 2015년 정기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2014년의 사업과 감사 결과를 보고하였고, 2014년도 결산안과 2015년도 사업계획안, 2015년도 예산안을 검토하고 결의하였습니다. 이어서 2월 13일 문경정토수련원에서 한국JTS 2015년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JTS 정회원이 소집되어 2014년도 결산과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India
인도

1. 수자타 아카데미 학기말 고사 시작

2월 16일부터 수자타 아카데미 기말고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교무실 안에 자물쇠를 채운 시험지 방을 만들고, 아침 조회와 종례 시간에 시험에 대해 공지했습니다. 아이들은 긴장한 얼굴로 선생님 말씀을 경청하고 시험에 임합니다. 시험이 끝나고 청소하는 시간. 몇몇 학생들의 표정이 당장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 합니다. 얘들아 괜찮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래!

2. 저체중아 조사와 계산기

마을에서 추위가 물러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지바카 병원은 저체중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저체중아 조사는 5세 미만 어린이들의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여 영양상태를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유아용 신장계와 체중계 뿐만 아니라 계산기도 꼭 필요합니다. 병원의 낯선 환경에 놀라 엄마에게 매달리는 아이들의 몸무게를 측정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활동가들이 직접 아이를 안아서 측정하려니 필기를 할 수 없어 계산기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혼잡함 속에 지치기도 했지만 귀여운 아이들 덕에 행복했습니다.

3. 재봉반 중급반 졸업.

아직 재봉선이 삐뚤빼뚤 하지만, 그래도 매일 조금씩 연습해 드디어 재봉 중급반 졸업식을 맞이했습니다. 졸업 시험 삼아 유치원 교복 셔츠와 바지, 그리고 스커트를 각자 만들어 1~10점까지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 중 가장 잘 만든 학생은 호명되고 박수를 받았습니다. 짜르카(물레) 아주머니들도 함께해서 재봉반 졸업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번 시험을 통해 부족했던 기술을 더 습득하는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Philippine
필리핀

1. 만타부 마을 분교 증축 목재 준비 및 주민 회의

JTS 센터가 위치한 지역인 리보나 군과 협의하여, 오는 3월부터 만타부 분교 증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필리핀 JTS와 리보나 군, 실리폰 바랑가이, 만타부 마을 조직, 부키드논 주 교육청 간의 사전 조율이 있었고, 3월에 양해각서(MOA)가 체결될 예정입니다.

2. 민다나오 12년 활동 현장 모니터링

1월 28부터 2월 3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이사장 법륜 스님과 한국JTS 활동가, 필리핀JTS 활동가들이 함께 지난 12년 동안의 민다나오 활동을 점검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JTS가 지원한 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잘 안되고 있다면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연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Laos
라오스

1. 콕농부아 마을 학교 교복 지원

2월 6일, JTS 라오스 콕농부아 마을 학교 학생 63명에게 교복을 지원했습니다. 학생들이 체형에 맞는 옷을 입을 수 있도록 7개 사이즈로 나누어서, 한 명당 상의 2장과 하의 1장을 한 벌로 구성하여 지원했습니다. 이 날은 많은 학부모와 주민들이 학교에 나와 교복을 배분하는 것을 구경하고, 아이들 못지않게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좋은 재질의 옷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도록 먼 시내까지 나와 도와준 콕농부아 학교 선생님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2. 콕농부아 마을 학교 준공식

2월 11일, 콕농부아 마을 학교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한국 본부에서 이사장과 대표를 비롯하여 4명이 라오스를 방문하였고, 주 교육청과 군 교육청 대표를 비롯한 많은 직원들이 준공식장을 찾았습니다. 타 기관 직원 및 타 학교 교사도 다수 방문하여 콕농부아 학교를 답사하고 완공을 축하해줬습니다. 행사를 모두 마치고 그 동안의 수고에 대해 서로 격려와 감사를 전하며, 손님들과 주민들,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식사하며 모두 즐거운 한 때를 보냈습니다.

3. 더프라미스의 에코백 지원

국내 NGO 단체인 더프라미스의 후원으로 그동안 공사에 참여하느라 수고가 많았던 콕농부아 마을 주민들에게 에코백을 선물하였습니다. 에코백은 콕농부아 마을 총 79가구에 가구당 1개씩 선물하였으며, 함께 온 그림책 20권은 학교에 기증하여 학생들이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프라미스의 후원에 특별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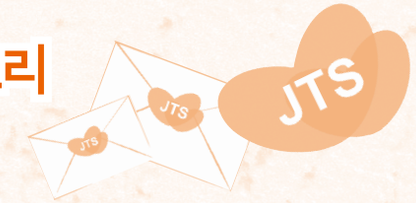
4. 라오스JTS 활동가 활동 종료

라오스에서 콕농부아 마을 학교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배혜정, 박용대 활동가가 1년 동안의 활동을 마치고 3월에 귀국합니다. 박용대 활동가는 회계업무 및 신규사업 조사를 담당했고, 배혜정 활동가는 총무 업무와 콕농부아 프로젝트의 총 책임을 맡아 활동했습니다. 라오스JTS의 활동가 여러분, 그간 수고 많았습니다.

<해외 파견 자원 활동가> (* 신규 파견 활동가)

인도	*장도연, *쁘리앙카, 김신아, 최동호, 박종화, 권도영, 신예슬, *박영민, *강명희, *김미정, *김민경, *심애남, *정유진
필리핀	**민다나오 :** *안병주, 김희자, 이재곤, 박영일, *이진옥, *송우진, *홍민지, *박시현, *오정심 **마라붓 :** 송지홍, 원석환, 오성근
라오스	배혜정, 박용대

후원인의 소리



돌봄과 배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 권혁주 –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잘 사용해주세요.
– 금양중 1학년 5반 축구 우승 –

저의 생일 케익을 인도 어린이들에게~~~
– 김성수 –

좋은일에 써주세요. 특히 못먹는 분들에게 음식을 주면 고마울거 같아요.
– 정세진 –

일산 봄 주간 경전반 졸업을 축하하며 학생들이 함께 후원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회향하는 마음입니다.
– 신세라 –

석사 학위 취득을 회향합니다.
– 김정화 –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 동작고 2학년 3반 –

우리 색시 생일이에요 ^^ 건강하고 행복하게 백년해로하며 살게요~
– 이동원 –

함께 행복한 세상~~♡
– 박완임 –

생일을 맞이한 김태화님께서 복 많이 지으시길 발원
– 백경화 –

죽사신도님들의 입춘 삼재풀이 동전입니다.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죽사신도회 –

분별심을 내려놓겠습니다.
– 김경란 –

모두 건강하세요^^
– 김경미 –

특별후원금 (2014. 12. 01. ~ 2015. 1. 31.)

2014년 12월 북 한 결 연

김경미	60,000
김기범	50,000
김미나	5,000
김미정	100,000
김승희	30,000
김유진	50,000
김재춘	100,000
김정애	3,000,000
김진환	50,000
김혜경	15,250
노샛별	50,000
목인방(김홍임)	130,000
문경숙	40,000
박동민	50,000
박성아	5,000
박완임	10,000
박희달	300,000
백경화	50,000
백서이	100,000
서효재	300,000
손길수	37,390
수미정	10,000
신재영	10,000
신종섭	10,000
안영선	17,010
오의석	300,000
웰브랜드	50,000
유한택	150,000
이경옥	17,550
이광준	10,000
이규경	10,000
이동규	10,000
이서현	5,000
이진일	10,000
이해경	50,000
이향애	70,000
임근영	50,000
임상열	10,000
정민호	50,000
정백기	100,000
최순호	240,000
한동규	8,000
한진이	50,000
허대영	10,000
홍다연	10,000
홍진숙	30,000

인도 및 제3세계

강영례	50,000
강영예	50,000
김미정	100,000
김승희	30,000
김유진	50,000
김은주	50,000
김진환	50,000
미국JTS	37,000,000
박진원	10,000
박희달	200,000
백경화	50,000
성영선	100,000
소진호	30,000
신재영	20,000
신종섭	20,000
오의석	30,000
위옥주	10,000
유소영	10,000
이광준	20,000
이주형	20,000
이해경	50,000
임근영	50,000
임상열	10,000
임성희	10,000
임희정	200,000
장영인	100,000
정민호	30,000
정백기	100,000
정윤점	500,000
정현옥	20,000
정현옥	20,000
한지민	10,000,000
허영미	200,000
홍다연	10,000

필 리 핀

강영례	50,000
강영예	50,000
김승희	30,000
김유진	50,000
김진환	50,000
미국JTS	37,000,000
박진원	10,000
박형섭	10,000
박희달	200,000
백경화	50,000
신재영	20,000
신종섭	20,000
웰브랜드	50,000
이진일	5,000
이해경	50,000
임근영	50,000
임상열	10,000
임성희	10,000
정민호	30,000
장백기	100,000
장현옥	10,000
하수호	10,000

JTS 전체사업

7413	330,000
0173624453	100,000
(주)엠디 와이드	1,050,000
(주)오메가포인트	10,000,000
(주)피앤제이에듀	100,000
071-김애경	10,000
강민경	40,000
강은경	400,000
강은숙	100,000
강희석	105,000
고석복	10,000
고숙자	10,000
고월출	367,500
故윤여훈	26,500
광주과학고	277,220
구건희	55,000
구영희	1,000,000
권경민	200,000
권상례(정덕심)	50,000
권용순	900,000
권지혁	35,000
금삼승민승필	31,000
김경희 98914	5,000
김계화	30,000
김기범	50,000
김미영	69,400
김미영	200,000
김민서	10,080
김민준	200,000
김봉진	50,000
김성열	100,000
김성희	30,000
김승희	30,000
김양기	30,000
김양수	138,000
김영선	100,000
김영선	100,000
김영숙	200,000
김용규	300,000
김유진	300,000
김유진	50,000
김은영	500,000
김은정	50,000
김일수	1,000,000
김장남	50,000
김정윤	50,000
김종일	50,000
김주빈	50,000
김지훈	12,690
김진환	50,000
김춘희	250,000
김하늘	27,110
김한수	100,000
김한숙	53,000
김해정	30,000
김현성	10,000
김현주	20,000
김현철	10,000
김효미	200,000
나경자	50,000
나용학	5,000
남선아	50,000
노원가을불대박정숙	100,000
노희경	5,000,000
눈비산마을	500,000
대전연꽃회	250,000
도큐헛(주)	75,000
류태경	100,000
무명	10,000
문금령	5,000
문상동	190,000
문수향	10,000
문영희	50,000
문정숙주도원(길벗)	150,000
미국JTS	36,493,370
민경덕	540,000
민지선	110,000
박경자	500,000
박경자박점수	500,000
박관자	10,000
박관자	10,000
박세은	6,420
박순양	20,000
박애자	50,000
박옥경	100,000
박원임	10,000
박용승	500,000
박원남	300,000
박유숙	130,000
박유춘	50,000
박정순 법무사	490,000
박정자	10,000
박지양	443,000
박지훈	50,000
박진영	300,000
박진옥	100,000
박진옥	100,000
박태화	1,000,000
박희달	300,000
배동규	60,000
배선화	50,000
배지영	1,000,000
백경화	50,000
백서이	200,000
백성희	157,500
백왕순	245,000
백익숙	200,000
백현신비	11,840
백현초1-3	10,830
변동해	10,000
변정미	200,000
부사후원금	237,831
부천부명중학교학생일동	207,100
북로그컴퍼니	3,000,000
쁘리엉카	221,000
사죄	30,000
상동자동차정비	560,000
서정순	1,150,000
서효재	100,000
선정고등학교	315,000
성영선	200,000
손영수	10,000
손영희	100,000
손예은	7,130
손은미	25,390
송미해	500,000
송방옥	1,000,000
송종수	100,000
수미정	10,000
스마트월드	161,000
신동현	10,000
신재은	10,000
심성혜	1,000,000
심옥진	50,000
심효선	80,000
안치애	300,000
안호호	1,000,000
엄인용	100,000
오미정	30,000
오복당서적	101,000
오상옥	100,000
오영정	200,000
오주혁	15,400
우경선	210,000
우남준	30,000
우연수	10,000
우희수	10,000
운문사사교반	900,000
월포지점	7,570
위경현	10,950
위선유	540,000
유동근	50,000
유애경	30,000
유현영	1,000,000
유현주	100,000
윤성희	10,000
윤옥순	1,000,000
윤태영	50,000
이경희	500,000
이귀숙	20,000
이도형	10,000,000
이동훈	34,000
이문희	30,000
이미예	10,000
이미향	10,000
이병기	10,000
이봉구	100,000
이순희	150,000

이승용 20,000
이승호 50,000
이앵순 50,000
이원형 20,000
이유진 20,000
이은경 200,000
이은규 30,000
이은희 10,000
이인수 210,000
이인식 10,000
이인철 10,000
이재만 20,000
이재선 1,000,000
이정여 5,000
이지원 80,000
이지해 10,000
이창수 500,000
이태조 500,000
이학영010-8861-3008 100,000
이해경 140,000
이혁진 140,000
이현미 10,000
이현수 153,000
이혜진 100,000
이희정 137,000
일시후원 300,000
임근영 50,000
임명희 100,000
임학우 250,000
장성남면우체국 48,470
장세영 20,000
장순석 10,000
장현련 10,000
장현주 1,000,000
전규식 20,000
전문표 2,000,000
전민성 8,870
전수빈 12,680
정경수 300,000
정경아 30,000
정미란 500,000
정미숙 1,000,000
정미정 1,000,000
정백기 200,000
정소연 50,000
정원석 11,000
정태준 15,280
제영악 500,000
조경훈 10,000
조보경 10,000
조보경 300,000
조선연 10,000
조원희 60,000
조은영 1,000,000
조재희 100,000
조진근 농협 50,000
조진용 300,000
조진용 100,000
조혜진 50,000
주미경 50,000
주식회사 세상에서 5,000,000
주식회사 파파야구 5,000,000
중국에서 20,000
중랑김혜숙4922 140,000
지금주 100,000
지리산살래국수 3,610
지은아 2,000,000
지준희 100,000
진건고 1139060
진서윤 50,000
진소연 65,570
진영희 10,000
차혜영 100,000
천성철 10,000
철산초등학교6학년 514,750
최미희 5,000,000
법륜스님 1,157,000
최수연 30,000
최순희 80,000
최원복 49,800
최은서 99,000
최정환 10,000
최제익 30,000
최진영 10,000
최해운 70,000
최희윤 10,000
춘천 서상초등학교 1,844,200
평택동삭초43 24700
하경옥 50,000
한영민 10,000
한음 2,380,000
한진이 20,000
한향란 500,000
함미정 30,000
함정연 432,420
하남주 100,000
허원진 120,000
호주모금490호주달러 457,733
황영만 200,000
황영애 10,000
황정숙 20,000
황혜림 100,000

2015년 1월 북 한 결 연

강희숙 100,000
곽도순 30,000
권현진 100,000
김경미 100,000
김경미55398 30,000
김광화 12,380
김도희 50,000
김민정 20,000
김시헌 5,000
김영섭 50,000
김유진 250,000
김윤홍 150,000
김정미 300,000
김정윤 500,000
김종헌 50,000
김준열 100,000
김준형 100,000
김창우 10,000
김태선 45,120
김현정 20,000
나경원 50,000
나경자 25,000
나경주 50,000
남리라 100,000
남주미 30,000
문진영 5,245
문진영 100,000
박동민 50,000
박완임 10,000
박혜인 30,000
백서이 100,000
서효재 1270000
신세라 2,000,000
신재영 50,000
신종섭 20,000
안정륜 50,000
오경록 200,000
유소영 10,000
유혜원 5,000
이광준 30,000
이미란 10,000
이미숙 300,000
이민아 10,000
이상헌 500,000
이재령 5,000
이주형 500,000
이진일 10,000
이창수 200,000
이향애 50,000
임진세 50,000
임해린 5,000
장민호 20,000
정백기 50,000
정정희 10,000
정혜승 30,000
조군자 30,000
조정례 183,000
주영란 20,000
최정인 5,000
하연숙 30,000
한그루공방(김홍임) 180,000
한양희 50,000
허대영 10,000
황수현 30,000

인도 및 제3세계

강영예고성열 50,000
강희숙 50,000
권현진 100,000
김유진 250,000
김정윤 500,000
김진환 50,000
김창우 10,000
나희원 50,000
남리라 100,000
박별님 10,000
방윤호 5,000
방준석 50,000
소진호 30,000
신동현 70,000
신종섭 10,000
문진영 50,000
박별님 20,000
박정환 50,000
방윤호 5,000
방준석 50,000
백경화 50,000
법주도서관 1,000,000
성영선 100,000
소진호 30,000
송경연 50,000
신종섭 10,000
심재희 30,000
오경록 150,000
우병근 200,000
웰브랜드 50,000
이미란 10,000
이지희(금양중1학년7반) 10,000
이진일 10,000
이창수 100,000
임규연 20,000
전소영 50,000
정민호 20,000
정백기 50,000
정연우 50,000
정우석 50,000
정정희 10,000
정혜승 20,000
주영란 10,000
하연숙 10,000
한양희 50,000

필 리 핀

강영예고성열 50,000
강희숙 50,000
권현진 100,000
김유진 250,000
김정윤 500,000
김진환 50,000
김창우 10,000
나희원 50,000
남리라 100,000
박별님 10,000
방윤호 5,000
방준석 50,000
소진호 30,000
신동현 70,000
신종섭 10,000
양창호 1,000,000
오경록 150,000
웰브랜드 50,000
이상헌 200,000
임규연 20,000
정민호 20,000
정백기 50,000
정정희 10,000
주영란 10,000
하연숙 10,000
한양희 50,000

JTS 전체사업

0173624453 200,000
(주)유진코메탈 300,000
031-김애경 10,000
14울산가을 92,000
237백일출가 835,000
강민경 40,000
강연희 30,000
강인숙 10,000
고대사대부중 383,200
고민우 10,000
고영의 100,000
고형근 91,500
곽무연 300,000
권영희 100,000
권현진 200,000
금삼승민승필 31,000
김경희 5,000
김경희36557 30,000
김동근 3,000
김동원 1,000,000
김동현 50,000
김문주 20,000
김미향 200,000
김병율 100,000
김수영 10,000
김수윤 10,000
김수현 2,280,000
김양기 30,000
김연수 50,000
김연영 220,000
김영선 100,000
김영아 50,000
김유진 250,000
김윤홍 150,000
김이영 100,000
김일명 50,000
김재춘 100,000
김정란 500,000
김지식 290,000
김지연 10,000
김창우 30,000
김태연 10,000,000
김혜림 50,000
김효윤 200,000
김희자 196,380
나경원 50,000
나용학 5,000
나희원 50,000
남리라 200,000
남정화 500,000
내서김수 100,000
내포중학교 54,600
대안 정춘득 200,000
류명수 50,000
류진학여일선 100,000
무기명 10,000
문정원 1,000,000
문진영 49,572
민지선 60,000
민춘희 100,000
박경숙 100,000
박경희 3,000,000
박계만 10,000
박미혜 100,000
박민우 100,000
박민우 50,000
박상철 100,000
박소하 140,022
박순양 20,000
박옥경 80,000
박완임 10,000
박중현재현상사 780,000
박현진 100,000
박희선 광주 50,000
방영옥 100,000
배옥순 1,500,000
백경화 50,000
백서이 100,000
베듀호텔허브점 30,750
변동해 10,000
산청간디학교 198,410
서은주 500,000
서준교 10,000
서혜원 10,000
서효재 550,000
성과금 100,000
성영선 100,000
송종수 100,000
신동현 10,000
신동훈 1,000,000
신종섭 10,000
신창현 200,000
심옥진 50,000
심희영 200,000
안선민 30,000
엄애순 100,000
오세욱 70,000
오주영 500,000
우남준 30,000
우병근 20,000
우연수 10,000
우희수 10,000
위인성 16,530
유 여여성 100,000
유강현 50,000
유강현 50,000
유동근 50,000
유미정 100,000
유애경 마산 221,020
윤기진 10,000,000
윤리경 100,000
윤지수 300,000
이경신 200,000
이경희김수림영가 437,000
이길림 100,000
이동민 길음초5-1 8,220
이미란 10,000
이미향 10,000
이민석 대전 50,000
이상아 50,000
이상호 300,000
이소담 50,000
이승용 20,000
이승현 9,250
이유진 20,000
이은경 100,000
이은규 40,000
이은희 110,000
이인철 10,000
이재만 20,000
이정여 5,000
이정자 500,000
이주형 500,000
이지현 대전 50,000
이진우 100,000
이창수 300,000
이혁진 100,000
일시후원 20,000
임양호 140,000
장세영 20,000
장순석 10,000
장현련 10,000
장형하 200,000
전미정 410,000
정경아 30,000
정교필 100,000
정두덕 540,000
정미란 500,000
정미진 10,000
정백기 150,000
정성채 100,000
정연욱 365,000
조용석 500,000
주영란 10,000
지승헌 50,000
진영희 10,000
천윤미 30,000
최경호 100,000
최근영 30,000
최복림 100,000
최우희 30,000
최유정 134,240
최정자 366,000
최황래 1,000,000
타카하시노부하사 91,030
하상의 50,000
한양희 50,000
한영민 10,000
한혜자 100,000
함미정 30,000
허지미 100,000
황영애 10,000

해외JTS 후원금

(2014. 12. 01. ~ 2015. 1. 31.)

미 국 J T S 2014년 12월

김금화 $50.00
김명 $100.00
김성세 $100.00
김윤진 $200.00
김지현 $30.00
뉴저지 법당 모금 $318.00
뉴저지 법당거리모금 $168.00
무주상 $226.00
무주상 $40.00
무주상 $400.00
민윤기 $80.00
박현수 $100.00
백은주 $50.00
워싱턴정토회캠페인 $842.25
유주영 $30.00
이귀염 $200.00
이귀염 $100.00
이동근 $140.00
이상훈/이상호 $50.00
이지훈 $90.00
이학우 $50.00
장영경 $40.00
정제니 $100.00
정혜주 $100.00
조경화 $20.00
최윤희 $142.00
하정옥 $100.00
하주홍,하혜숙 $200.00
한정희 $100.00
한혜진 $100.00
황경옥 $200.00
ANDREW CHOI $1,000.00
DONG YOUNG YI $400.00
EUNSUN CHAE $200.00
HEEKYUNG SANDERS $100.00
JEN JEN BEAUTY LLC $200.00
JUNG IE JUN $30.00
KYUNG J KIM $5.00
MI Y KWON $600.00
MICHAEL W YANG $31.00
MICROSOFT MATCHING GIFT $300.00
NO SUK YI $50.00
Roman Coppola $1,000.00
SEUNGMUK YOU $20.00
SEUNGYONG PARK $30.00
SEUNGYONG PARK $30.00
SOOGIL JEONG/ HEESUN HONG $50.00
Soyeon (Jung)Kim $5,000.00
SUSAN KWAK $100.00
YOOKYUNG NOH $50.00

미 국 J T S 2015년 1월

김선희 $50.00
김세희 $50.00
뉴저지 법당 $169.00
무주상 $5.00
박현수 $100.00
벤쿠버 정토 $124.38
벤쿠버 정토 $1,000.50
시에틀법당 $185.00
윤호정 $50.00
이동근 $210.00
이동영 $400.00
이연순 $100.00
이정인 $100.00
이화순 $700.00
정명지 $100.00
정수길 $50.00
조병창 $100.00
조속자 $100.00
차지윤 $100.00
최수영 $60.00
하주홍&하혜숙 $120.00
JONGSIK & MIYOUNG AHN $100.00
JUNG IE JUN $30.00
KEUN H. LIM/KUN B LIM,M.D. $300.00
KYUNG J KIM $5.00
NAMKEE G. CHOI $100.00
NFL $145.00
PATTY O KIM $30.00
SANGJAE LEE $1,000.00
SEUNGMUK YOU $20.00
SUNYOUNG AHN $100.00
YONG S SUH $100.00
YOUN KYONG WON $50.00
Young W.& Sue kim $100.00

나눔저금통 현황 (2014. 12. 01. ~ 2015. 1. 31.)

후원 문의전화 02-587-8995

♣나눔 저금통을 보내주신 분의 성명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금통에 성명을 네임펜이나 볼펜 등으로 명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실을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강서
김정화 36,350 황휘라 211,910

강화
강혜경 46,050 김윤숙 21,910 박영채 28,850 신나는 27,620 임호석 31,050 한규현 73,520 황정자 23,900

거제
거제법당 105,120 거제법당 87,010

경기광주
경기광주법당 120,500

경산
강라경 3,110 강민재 4,150 경산법당 27,070 구원모 2,190 권성은 11,640 권여진 8,320 김가영 4,800 김강준 6,790 김강현 4,600 김건영 3,380 김경민 1,110 김관우 4,800 김나순 22,780 김나윤 7,150 김다애 4,150 김도현 4,650 김라희 7,900 김민승 11,440 김민제 9,690 김민준 10,250 김보윤 10,460 김서윤 25,010 김소영 8,540 김재범 8,330 김재현 3,710 김준서 11,320 김지훈 4,910 김태일 12,770 김한빛 3,260 김해아 4,510 남유림 2,310 노강민 28,400 노진서 7,230 도건이 30,230 도건호 26,410 도우성 11,390 무명 18,370 박다경 6,630 박성우 5,490 박수민 13,210 박유현 3,190 박정주 2,720 박준형 9,060 박현준 5,360 박혜빈 4,950 서재우 5,260 석주원 4,190 성주엽 30,990 손동엽 9,690 손창원 72,820 오가은 11,970 유준희 10,340 유초희 11,280 윤주현 16,770 윤진호 9,680 윤태준 7,400 윤호열 6,700 윤홍열 5,590 이도겸 8,520 이동건 5,150 이동율 9,610 이성연 10,110 이수빈 4,460 이승연 38,320 이예솔 19,730 이윤찬 8,270 이의찬 6,980 이정엽 10,360 이주호 15,240 이준형 10,380 이지호 2,540 이지후 2,620 이채림 17,940 이태규 6,690 이태현 12,590 이하은 10,930 임연진 5,100 장시우 12,170 장희원 15,580 정성우 6,290 정성재 11,460 정현태 4,150 조민우 7,550 조이현 7,560 ㈜대유 50,000 주상민 7,510 주형준 10,980 최지연 13,560 한도연 2,280 황서연 6,740 황지민 11,070 황지환 13,280 황청우 9,090

경주
권신옥 19,730 무명 16,000 무명 94,770 심현아 23,930 최윤순 43,000

관악
심미영 26,570 이정미 26,530

광명
고경례 50,000 김현영 58,360 김혜영 15,310 무명 8,460 박금희 28,600 박지윤 16,930 서용원 17,940 시해 21,150 이민숙 6,690 이정자 15,880 이정현 17,900 장효숙 33,550 전창원 42,970 전창원 33,190 정인숙 23,360 정인숙 20,400 조남숙 34,570 조선영 28,600 최정해 25,130

광주
광주법당 191,120 무명 10,650 손주아 7,550 송지은 11,690 안수연 35,520 유경숙 17,150 차영희 77,710

구로
구로법당 55,130 허경석 41,000

구리
도정은 30,770

구미
구미법당 55,520 김정화 50,550 김혜정 14,410 장혜진 39,680 조금희 17,950

군산
노춘민 41,750 성경화 106,300 사영곤 25,000 이갑순 50,710 이경화 25,950 최학춘17,670

기흥
기흥법당 19,620 김형수 20,210 박민자 21,280 오진수 30,650

김해
김석조 23,760 김해법당 20,000 박복순 31,590 이정희 28,470 조영철 21,930

남양주
김무로 39,800

내서
내서법당 33,200 머니여사님 21,350 조현하 14,090 코오롱사우나 54,270 코오롱사우나28,420 코오롱사우나 114,000 함안김종민,최진형 65,840

노원
고세정 37,220 김갑윤 10,000 김연희 24,600 김인영 14,540 문경숙 20,080 박동진 13,960박연숙 36,200 성수경 35,560 유숙희 21,920 윤옥순 47,110 이미남 39,270 이선민 27,490하연희 19,290 한은숙 30,000

달서
김명수,홍관희,박숙희 67,980 달서법당 40 채은숙 17,500

대구
구남숙 40,790 김영수 28,260 무명 9,190 무명 26,400 무명 34,660 무명 68,640 무명7,850 오원숙 10,570 이규민 62,060 이순옥5개 161,400 임금실 47,270 임금실 59,820 정인수 20,850 조경희3개 54,730 황순남 25,880

대연
대연법당 156,550 대연법당 62,470

대전
금송농원 245,620 김선근 25,550 동촌한의원 28,030 무명6개 228,850 박광은 36,720 손은미 25,390 오심건 22,250 유미량 23,000 윤미섭1모둠 20,300 이순조 20,120 전미경20,620 진상복 15,580 홍명희 31,000

동래
동래법당 145,140 동래법당 113,470 동래법당 50,780 동래법당 265,440 동래법당 137,170

동작
동작법당 25,190

마산
배은경 9,180 오을미 33,300 유애경 221,020 유효열 78,360

문경
권태옥 26,720 우치구 12,360 이채형 31,060

밀양
김영미 27,950 밀양법당 12,420 밀양법당 187,160

부사
김경순 20,600 김지환 14,000 김혜민 16,110 무명 52,580 박예진 39,750 박중현 45,000 박진영 53,170 부사법당 831 오민경 30,280 장병윤 102,510

부천
부천법당 245,180 서진영 20,170 안옥남 30,170 윤명실 28,760 정선희 19,580 정순심19,540 정순심 18,380 정인철 44,080 최태자 24,370

분당
무명 16,670 이화영 31,870 장혜은 81,070 전소은 8,190 전지민 38,710

사하
김기음 31,260 김영미 18,790 김옥순 33,050 김희정 14,870 사하법당 18,080 정금순 42,150 정현주 52,970 황옥선 6,640

서면
서면법당 133,570 서면법당 261,100

서초
1-1반(강병주 15,440 강승민 1,650 권민호 1,130 김승원 50,050 김은정 3,780 나선철 3,400 이정근 1,050 최민준 3,150 한훈희 3,000 현병연 600) 1-2반(강다훈 4,620 강준영 5,970 김소연 10,630 김형준 5,200 박관진 14,170 박삼영 1,080 박세희 1,010 안세린 2,940 이지희 4,900 정유빈 1,450 조병운 6,530 최지아 1,560 최지예 8,600 한연수 4,400) 1-3반(고영서 2,910 권나현 3,770 권민구 2,070 김민서 3,000 김재인 5,030 김형민 2,410 노유정 9,570 민준식 5,790 박미경 7,460 박수빈 9,960 박시혁 2,290 박채림 3,930 박하늘 2,180 백가연 12,710 송은빈 1,980 안상진 4,260 오준혁 5,700 유민지 4,830 유정우 4,410 이다솔 6,740 이서은 3,640 최현지 2,610 최효준 1,360 한규민 3,950) 1-4반(박주희 9,310 반지연 5,860 서인애 7,960 송정민 5,780 오종현 3,370 이도환 2,100 이서연 26,040 전준형 26,200 조현지 5,060 한희성 10,360) 1-5반(권송미 6,180 권순욱 8,200 기고은 1,820 김동화 4,390 방민채 3,230 안현민 5,980 양원석 2,300 양희선 1,390 이세현 2,560 이재우 6,110 이찬희 5,300 이혜정 16,550 정민혁 1,410 정호성 1,130 조선환 10,850) 1-6반(권은화 3,560 김민서 5,160 박시온 3,950 변효재 23,940 서지현 3,460 선채은 17,580 신글로리아 17,250 안성현 670 윤우영 12,910 이나연 14,680 이민경 2,810 이소희 1,610 장성민 1,800 최세아 11,560) 1-7반(강민지 2,300 고태현 27,410 곽귀민 1,250 곽주연 6,170 김동현 2,040 김승원 5,190 김예원 1,250 김우태 2,100 김진서 350 김찬영 1,510 김현우 14,700 나호수 5,350 노주아 22,500 박준서 7,120 백성경 2,000 변우식 18,400 송채림 25,050 신은지 1,930 안태현 10,130 이기민 3,300 이시연 1,360 이지민 1,700 임예원 1,800 조윤서 5,780 최유진 2,190 홍석희 1,430) 1-8반(강민지 1,990 김이슬 1,590 김준현 6,250 김진주 12,950 김태윤 810 문지혁 7,390 박정민 3,770 박한용 4,070 오민석 5,550 윤준혁 4,780 윤채영 8,450 이동연 7,440 이예진 2,370 이예현 4,870 이윤희 590 정다빈 1,840 정성훈 3,980 조민수 770 한종훈 7,940) 2-1반(강혜원 2,440 김유진 5,820 김채연 9,190 남지연 1,880 박세인 4,500 염동선 5,670 이지훈 6,470 이홍준 1,800 진혜민 2,710) 2-2반(김대연 6,490 김상원 5,450 김수정 8,320송성근 9,520 원서진 2,830 유제선 2,100 윤준서 23,740 이은지 2,690 이인화 5,080 조은기 3,350 조효진 1,900) 2-3반(김재희 7,400 김현지 7,140) 2-4반(곽영서 6,590 김나미 1,420 김보나 860 김성훈 7,420 김태겸 10,820 문성현 12,050 문이주 7,430 박준엽 2,020 신강윤 2,010 양혜인 1,980 윤선호 8,940 이주빈 3,210 최민우 2,650 한수정 12,430 홍준호 5,870) 2-5반(오진경 1,730 최지원 6,760) 2-6반(김성현 7,790 김연주 520 백지연 3,470 오명진 18,400) 2-7반(김가연 960 김동의 5,460 문혜빈 17,000 설현희 3,330 황민희 8,640) 2-8반(곽정은 6,270 김민택 2,000 박시윤 6,930 백준영 12,200 최현정 21,050 하선호 8,970) 2-9반(백승민 10,280 신명희 8,950 이동건 14,990 이동건 12,320 이성균 11,070 황혜원 17,980) 고유지 21,580 고은설 50,790 공수현 5,440 권민혜 32,420 권민혜 37,340 권준희 10,960 김귀주 28,820 김동금 5,100 김미애 34,420 김미애 21,600 김상훈,이경희 18,730 김소영 17,550 김옥경 29,230 김유진 35,060 김은경 69,680 김재훈 35,250 김종임 18,700 무명13개 615,330 무명2개 5,500 무명38개 901,960 문라윽 24,960 민복례 28,400 민정하 17,410 박경순 14,000 박수현 21,600 박임관 33,200 박정식 23,770 박정호 15,900 박효신 14,710 석경필 36,740 선창희 18,790 성승현 19,920 성일조 26,740 성창의,성인희 17,140 송명순 73,480 신혜자 15,250 안성민 38,000 양호석 15,580 원따찌아나 27,290 원종현 31,240 유수욱 24,210 유정자 29,540 윤현숙 16,770 이경희 47,330 이근원 12,920 이기열 10,050 이동준 12,500 이성민(부평초) 14,390 이성민(부평초) 10,920 이성민(부평초) 3,640 이시정 14,900 이윤아,이세아 32,890 이종년 12,640 이지현 17,950 이지현 13,330 이창림 40,800 이현숙 37,350 이현숙 18,550 임묘경 110,340 임은서 25,700 정소현 23,900 정재은 28,350 정재은 30,000 정화옥 30,650 차은정 4,940 최연화 4,330 최용준 26,120 최진택 18,140 하정옥 29,550 한지수 4,640 허향화 13,260 황연주 27,400

성동
김자영 34,570 윤태순 9,260

송파
송파법당 23,020 송파법당 15,280 송파법당 25,770

안양
박병만 136,090 김영용 22,190 김재홍 13,990 무명 13,160 박옥화 27,790 손영미 24,810유순화 43,550 이윤주 33,620

양산
유영길 22,040 황지혜 27,630 황지혜 37,300

양천
김희숙 22,380 박정근 21,420 이주연 38,620 조영재 25,000 조현정 19,780 조현정 44,180

영주
정은영 16,000 조명숙 68,600

용인
백현초등학교11개 134,000 (김민서 10,080 김지훈 12,690 김하늘 27,110 박세은 6,420 손예은 7,130 신비 11,840 오주혁 15,400 위경현 10,950 전민성 8,870 전수빈 12,680 1학년3반 10,830)

울산
김세엽 27,000 김도형 28,320 김숙자 44,000 김숙자 36,010 김순이 9,930 김시형 23,090 김양은 58,990 김원숙 33,140 김현옥 16,340 무명 21,080 무명 28,680 부산평화시장41,880 손득례 58,220 심숙희 84,200 심숙희 40,200 유영화 34,300 이명애 22,750 이정순36,960 장대균 29,500 정은석 40,310 최명숙 21,820

의정부
의정부법당 115,850

인천
인천법당 26,260 인천법당 83,170

일산
일산법당 660,520

전주
강대웅 19,380 김선화 42,430 남순정 20,340 박지민 16,990 서미경 18,910 서은숙 16,650 송경화 18,110 여은정 23,560 이기권 20,310 이화정 40,050 임애림 31,530 장옥화 17,590

정읍
장정인 18,720

제주
고은희 5,270 김동균 50,000 김형숙 35,900 이화순 30,550 허경미 56,600 현승환 14,500 현영숙 22,090

제천
제천법당 188,060

중랑
김혜숙 140,000 박남순 9,940 박현우 27,040 장석교 25,110 정해숙 30,240

진주
강수빈 7,950 권기훈 75,520 무명 118,690 무명 51,800 서유민 23,910 손경미 29,010 이지영 27,790 장지인 37,430 정미경 41,000 정미경 17,340 정순점 83,120 최충수 62,630

창원
곽수경 27,270 박영옥 34,710 오지혜 28,770 전봉자 23,270 창원법당 112,700

청주
김동수 47,500 김명종 56,140 무명 31,250 박순덕 25,940 백수정 58,290 오수경 75,450 이황휘 39,310 장정운 34,290 홍순옥 29,660

춘천
춘천법당 96,850

충주
무명 70,800 박종은 27,740 윤군심 23,770 이미영 9,940 이순천 20,750

태백
김순녀 47,000 이종선 40,150

통영
김현순 65,540 신명훈 38,350 정양순 40

평택
동삭초4-3반 13,950 동삭초4-3반 10,750 이명숙 100,820 평택법당 31,490 평택법당 26,770

포항덕산
김효순 16,130 무명 9,200 이미선 21,140 이지은 35,870 장금옥 28,130

해운대
해운대법당 136,900 해운대법당 71,500 해운대법당 5,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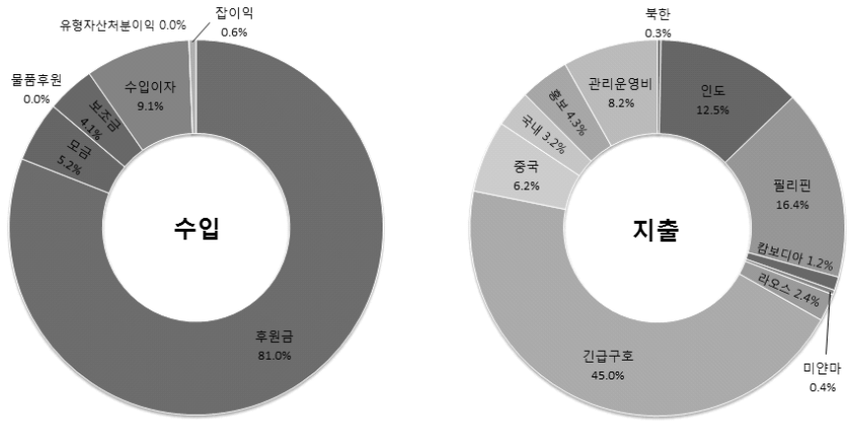
화봉
무명 24,240 무명 21,810 무명 20,570 박소현 59,300 유정란 54,110 차홍선 28,370 최현정 36,240 홍유미 33,390 홍정표 63,360

기타
강윤옥 34,040 고영숙 13,910 고형근 91,500 곽상용 17,100 군자농협신길동지점 18,450 기업은행약수동지점 26,510 길음초이동민 8,220 김명주 21,050 김미숙 21,800 김미영 69,400 김병윤 28,530 김지영 57,830 노원중박선화 22,000 무명 65,980 박상미 22,400 박소하 140,022 박수정 14,500 상록고저금통 432,420 손흥진 16,270 신한 31,641 안경례 13,770 안재현 4,110 오미숙 20,060 월포지점 7,570 이동석 15,250 이수아 29,310 이승현 9,250 이유진 10,370 이태혁 29,350 장성남면우체국 48,470 정태준 15,280 정태훈 23,260 정토법당 72,710 정토법당 32,400 조순덕 26,800 최유정 134,240 최효진 35,340 한승명살래 3,610

거리 모금 현황
2014년 12월 01일부터 2015년 01월 31일까지

23기백일출가모금 573,620 4차백일입재식모금 581,260 5층창고 6,800 강릉 848,560 강서 263,440 거제 783,980 경기광주 752,260 경산 906,490 경주 751,150 관악 271,280 광명 592,690 광주 1,547,940 광주과학고 277,220 구리194,300 구미 1,128,340 군산 223,470 기장 81,150 기장 324,790 길벗 9,423,332 김천 259,900 김해 1,641,860 남양주 271,280 내서 714,030 노원 1,214,810 달서1,707,012 달성 186,510 대구 6,695,900 대만화환전 6,862 대연 462,630 대전2,816,910 동래 3,519,190 동작 207,830 마산 3,315,130 목포 780,140 문경 186,400 밀양 487,880 부명중김영자 207,100 부사 738,090 부천 1,141,360 부평621,920 분당 480,840 사하 473,100 서대문 649,820 서면 1,136,950 서초 3,930,340 서현 190,590 성공회대모금 369,550 성동 273,010 송도 224,280 송파280,210 수원 1,078,170 순천 333,740 안동 249,020 안산 147,890 안양 1,146,310 양산 220,800 양천 1,043,300 양평 599,380 언양 274,300 여수 746,530 영주 502,290 영천 469,310 용인 675,850 울산 1,495,060 울산북한결핵모금 230,000 원주 120,400 의정부 184,750 인천 771,510 인천 638,310 일산1,280,970 일산 118,580 전주 394,030 정관 235,230 정읍 152,610 정토법당 1,842,610 정토법당 228,860 제주 1,010,040 제천 487,260 중랑 253,220 진건고거리모금 1,139,060 진주 1,798,480 진해 264,830 창원 2,498,910 천안 325,400 청주 1,145,170 춘천 347,150 충주 286,070 태전 690,070 통영 319,550 파주190,080 평택 515,310 포항덕산 1,759,320 함안 279,730 해운대 2,645,160 호주모금(490호주달러) 457,733 홍성 275,520 화봉 211,050

한국제이티에스
2014년도 기금사용 결과보고
(2014. 01. 01 ~ 12. 31)



[수 입]

구 분	금 액 (천원)	비 율 (%)	비 고
후원금	4,253,928	81.0	정기, 특별후원금
모금활동수입	274,683	5.2	캠페인 및 저금통포함
물품후원	400	0.0	
사업비보조금	217,682	4.1	KOICA
수입이자	475,676	9.1	
유형자산처분이익	550	0.0	
잡이익	31,424	0.6	
합 계	5,254,343	100.0	

[지 출]

구 분		금 액 (천원)	비 율 (%)	비 고
목적사업비	북한사업	5,176	0.3	
	인도사업	217,324	12.5	둥게스와리 교육, 의료, 마을개발
	필리핀사업	286,230	16.4	민다나오 만타부 교실건축 등
	캄보디아사업	20,284	1.2	라타나끼리 5개마을 학교건축
	미얀마사업	6,926	0.4	탄터빈 지역 마을 운동회
	라오스사업	41,271	2.4	콕농부아 마을 학교건축
	해외긴급구호사업	783,074	45.0	필리핀 마라붓 학교 조기복구
	중국사업	108,157	6.2	취약계층 지원
	국내사업	55,298	3.2	노인 및 장애인 복지
홍보사업		74,410	4.3	소식지 발행 외
사업비 계		1,598,150	91.8	
관리운영비		142,321	8.2	사무실 임차료 및 발송비 외
지출 합계		1,740,471	100.0	
차기이월금		3,513,872		
합 계		5,254,343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손길 - 자원봉사활동

지원하고 싶은 자원봉사를 선택하여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자원봉사 문의 02)587-8756

해외 자원봉사를 경험하세요

교육, 의료, 마을재건에 따뜻한
손길로 나눔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손길들이 모여 만드는 나눔의
현장에 함께해 주세요.
해외봉사 분야 : 건축, 농사, 회계,의료,
언어, 교육 등

국내 자원 봉사에 함께 하세요

한국JTS 사무실에서, 프로젝트 캠페인 등 여러가지 나눔 활동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손길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주세요.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작은 재능으로 큰 마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손길이 되어 주세요.
국내봉사 분야 : 번역,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후원관리, 영상, 출판/인쇄, 교육 등

아름다운 이웃을 만드는 나눔 - 나눔회원활동

지원하고 싶은 기금을 선택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나눔기금 문의 02)587-8995

나누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덜 쓰고 덜 가짐을 통해서
나누는 일은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나눔회원으로 행복을 찾으세요

나눔회원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
신청서 작성을 통해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나눔으로 함께 하세요

한국JTS 네이버 해피빈나눔
http://happylog.naver.com/jtstogether
한국JTS 나눔저금통
작은 저금통에 큰 마음 담기

[한국JTS 투명한 기금 운영알기]

JTS에서는 계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연 2회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소중한 기금의 운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